

AUTHOR 김용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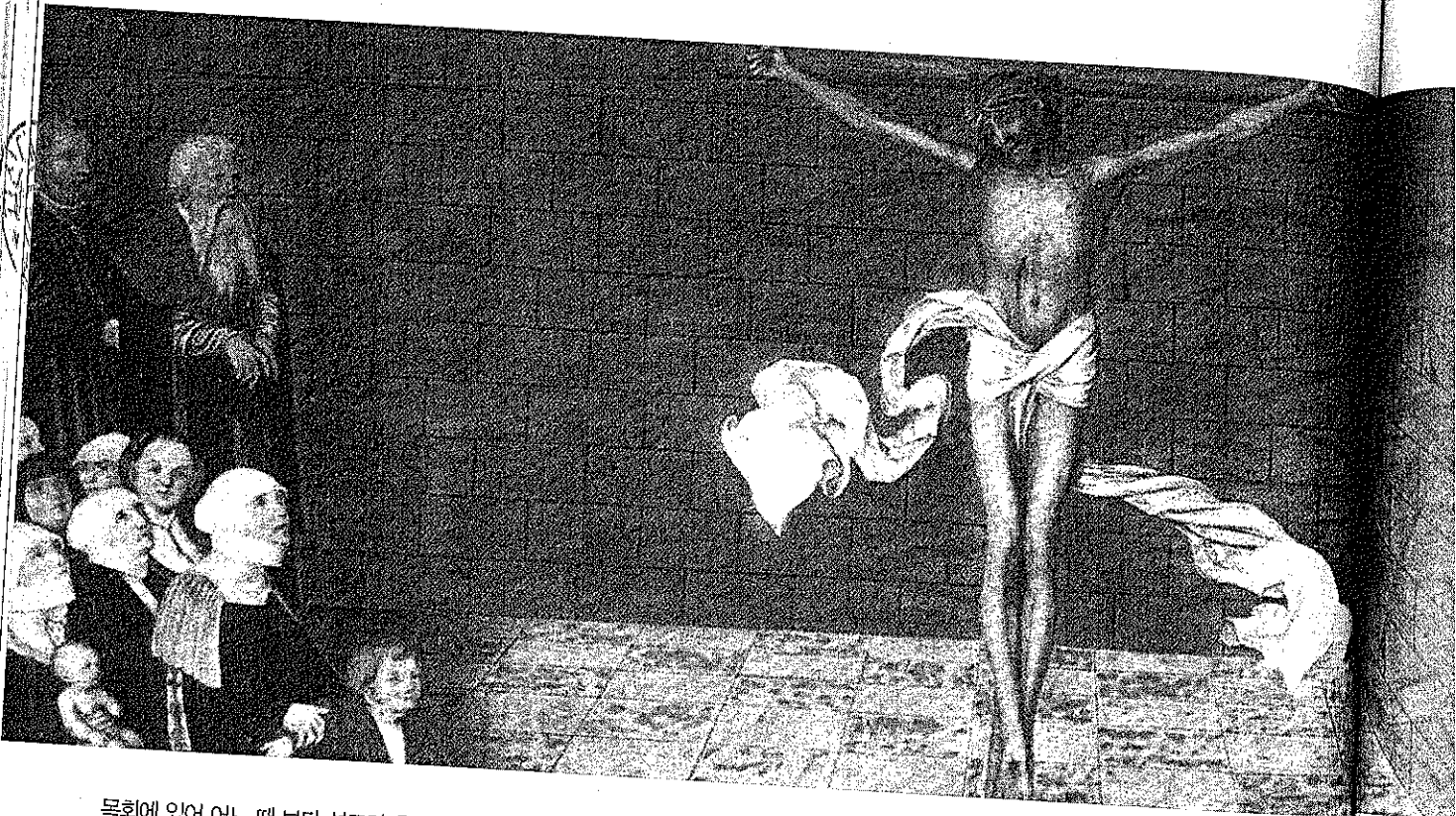
TITLE 설교자 루터를 말한다

IN 목회와 신학

vol. 244 (10. 2009): 140-149

설교자 루터를 말한다

김용주 안양대학교 겸임 교수



목회에 있어 어느 때 보다 설교가 우위를 차지하는 한국 교회와 같은 상황에서 위대한 설교자에 대한 관심은 각별하여, 여러 유명 설교자들의 설교집들이 출판되어 애독된다. 이런 상황에서 '설교자 루터'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는 것은 다소 부담이 되는 일인 것 같다. 과연 루터가 우리 설교자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기가 막힌 설교자'이기도 했을까? 그가 기가 막힌 신학자 혹은 저술가이었다는 데는 동의할 수 있을지라도 그에게 이런 명예까지 주는 것은 '루사모'들만의 신화화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염려는 설교자로서 그의 삶과 설교지론을 들어 본다면 조금은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그의 설교를 마음을 열고 읽어보면 오늘 우리 설교자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성광 같은 교훈들도 눈에 될 것이기 때문이다.

루터는 탁월한 설교자인가?

루터가 뛰어난 설교자였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했던 이유는 무엇보다 루터 자신에게 있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는 설교자이기 이전에, 너무 뛰어난 신학자였다. 그가 대학 강단에서 했던 강의들, 교회의 현안에 관계해 썼던 신학 작품들,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논쟁들과의 토론 그리고 교회

의 유익을 위하여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들에 대해 다룬 소논문들이 워낙 뛰어나 그의 설교들을 들어보지도 못하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이런 뛰어난 업적들에 눈을 감고 설교자 루터만 바라볼 때, 설교자 루터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복음의 진리를 명쾌하고 효과적으로 드러낸 사람이었는지에 대하여 놀라워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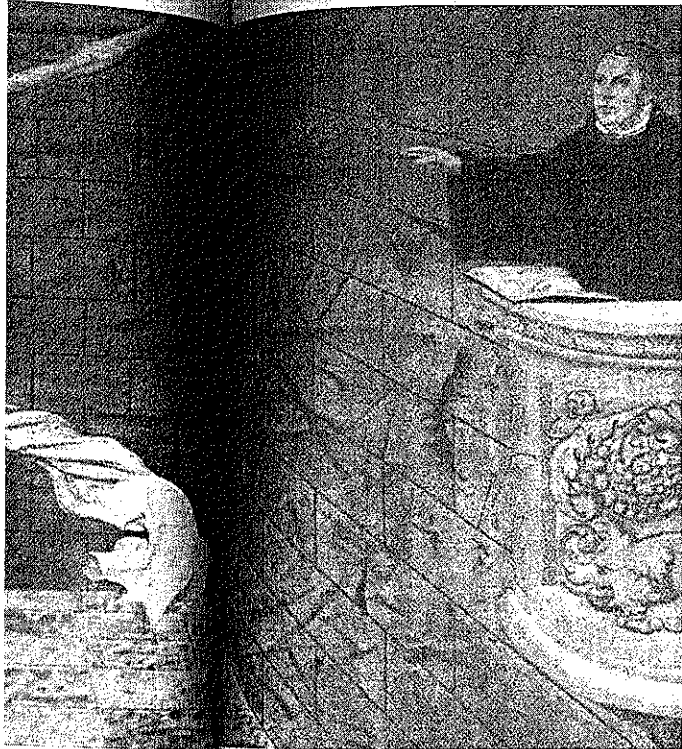
탁월한 설교자들이 많은 설교를 남기듯 루터 역시 생애 동안 많은 설교를 했고 대부분 남아 있

다. 루터는 2,000~2,300편 이상의 설교를 남겼는데 이들 중 2/3는 루터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의 초기 설교들은 대개 불투명한 점들이 없지 않지만 1522년에 지금까지 그가 남겼던 설교들에 대한 개정 작업이 착수됐다. 이 일을 맡은 사람이 뢰러[Georg Rörer: 1525년부터 시립교회의 집사였는데, 그는 루터가 1522년까지 했던 설교들을 개정

작업 했을 뿐만 아니라 1523년에서 1546년까지의 거의 모든 설교를 받아 적었던 사람이었다. 쿠시거[Caspar Cuciger] 역시 루터의 독려에 의해 그의 설교를 정리하고 출판했다. 루터가 설교를 가장 왕성하게 했던 때는 1520년대였다. 그는 1523년에 86일 동안에 137138편을, 1525년에는 59일 동안에 93편을, 그리고 그의 설교가 정점에 달했던 1528년에는 145일 동안 195편을 설교했다. 1530년에 들어서면서 그는 한 때 설교파업[Predigtstreik]을 한 적도 있었는데 이는 그의 설교가 청중들에게 충분한 영향을 미치고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1530년대도 계속 설교를 했지만 병 때문에 자주 빠뜨리기도 했고 시립 교회보다는 자신이 살던 '루터 하우스'에서 했다. 1540년에서 1543년에는 그의 육체의 약함 때문에 몇 편의 설교 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나 1545년 그는 다시 규칙적으로 설교를 했고, 그가 죽은 해인 1546년에는 그의 고향 아이스레벤으로 여행하는 중에 여러 번 강단에 올랐고 마지막으로 강단에 오른 것은 그가 죽기 삼일 전이었다. 루터의 생애를 돌이켜 볼 때 그는 평생을 설교자로 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매주 평균 두 번 내지는 세 번 설교했고 때로는 네 번까지도 했다. 그가 얼마나 치열하고 힘겹게 설교사역을 감당해 왔는지에 대해서 루터 스스로 말한다.

“지난 천년 동안 나보다 지독한 사람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30년 동안이나 줄기차게 설교를 해왔고 그 중 하루에 세 번 설교한 날도 있고 사순절에는 매일 설교를 했고 심지어 하루에 네 번 설교를 한 날도 몇 번 있었기 때문이다. 성 암부르시우스나 어거스틴보다 내가 설교를 더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루터는 상당히 많은 설교집을 남겼다. 스스로



▲ 루터는(그림 오른쪽) 하나님과의 평화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줬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다고 선포했다.

발행하지는 않았지만 한 페이지 정도로 요약한 설교를 실은 설교집 *Postille* 포스틸레를 들어 설교 준비를 하는 사람들과 가정의 아버지들이 참고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바르트부르크 피신 시절 작성했던 성탄절 설교집과 강림절 설교를 실은 많은 설교집을 남겼다.

루터가 설교를 얼마나 잘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선 동시대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가 사역하던 작센 지방의 선제후였던 현자 프리드리히는 특히 그의 설교를 좋아했다. 그는 루터의 설교를 통해 큰 영향을 받았고 복음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스스로 말했다. 프리드리히는 루터에게 “다른 여러 신학자나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때는 어떤 문제에 대한 여러 의견들 중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였으나 당신의 설교를 들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렸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루터의 설교의 탁월함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루터 연구가들의 입에서도 흘러나온다. 만 Peter Mann은 “루터가 그의 신학적인 글보다 그의 설교들을 통하여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획득했다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한다. 아울러 그는 루터가 스콜라 신학이 설교를 약화시켰다는 사실을 간파했고 설교 사역의 중요성을 회복했다고 지적한다. 아센도르프 Ulrich Asendorff는 “루터의 신학은 특별한 방법으로 설교와 연결되었다. 설교는 하나의 주변 테마가 아니다. 이 신학 자체가 본질적으로 설교이고 설교로부터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변한다. 이런 평가에 대하여 일일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해도, 그의 설교 자체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때, 우리는 그가 동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세대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대한 설교자였다는 사실에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 보름스 국회

1521년 4월 루터는 황제앞에 소환되어 자신의 신앙과 행동을 변호해야만 했다.

루터의 설교 이해

첫째, 루터에게 있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 행위 *Mitteilungshandlung*였다. 그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 수단으로 보았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Deus loquens* 이시다.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은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이 루터 설교의 가장 큰 특징이다.¹ 하나님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자신을 알려주셨다. 그러나 그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신다. 즉 이 기록된 말씀을 설교하게 함을 통하여 자신의 구원계획을 전달하신다. 이 설교의 전달자로 쓰는 사람이 바로 설교자이다. 설교자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는 사람이다.

둘째, 그에게 있어 설교는 전투행위 *Kampfhandlung*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설교를 통하여 전투를 수행하신다고 보았다. 그리스도의 전사로 자처했

던 그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 높아진 원수의 요새를 파쇄하는 전투를 수행했다. 자신의 사역이 난관에 처했을 때 그는 무엇보다 설교를 통해 뚫고 나갔다. 그는 면죄부 논쟁과 라이프찌히 토론을 통해 야기된 문제로 인해 보름스국회에서 칼 5세 앞에서 심문을 받아야 했다. 위클리프와 후스와 같이 그에게도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 그는 이 고통스런 순간을 설교라는 전투행위를 통해 뚫고 나갔다. 일행과 함께 보름스로 들어가기 전 에어푸르트에서 1521년 4월 7일에 '요한복음 20:19~20'을 가지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설교했다.² 그는 여기에서 당시 교회의 입장을 대변했던 스콜라 신학자들이 주장했던 행위구원을 비판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한 구원"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시대에 이 신앙을 통한 칭의를 설교하는 설교자가 너무 적음을 보고 "세상이 이렇게도 어지럽고 오무에 빠져 있는 이유는 오랫동안 참된 설교자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개탄했다. 그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자신은 죽더라도 이 진리를 말해야 할 것을 스스로 각오했다. "여러분께서 이러한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저의 목숨을 몇 번이고 끊는다고 할지라도 저는 진리를 말하려고 합니다. 저는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 저는 진리를 전할 것이고, 그리고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는 이 설교 후에 보름스국회에서 심문을 받고 이 단으로 파문되어 쫓겨나 바트부르그 성으로 들어가 가사로 위장해 거의 8개월 동안을 거기에 숨어 지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위로받아야 할 곳으로부터, 즉 자신이 시작했던 개혁의 중심지였던 비텐베르그에서 큰 소동이 났다는 소식을 접했다. 칼슈

타트(Andreas Karlstadt)를 중심으로 모여든 비텐베르그 성도들의 일부가 모든 가톨릭적 잔재를 없앴다는 명분으로 미사를 폐하고 성화나 성상을 파괴한다는 소식을 접한 것이다. 바로 그때 그는 편지나 소논문 등과 같은 여러 무기들을 버리고 '설교'라는 하나의 무기만을 간직하고 비텐베르그로 귀환하여 총 여덟 차례에 걸쳐 설교를 했다. 그리고 이 설교들을 통해 비텐베르그 안에 일어난 모든 소요를 잠잠하게 만들었다. 1530년은 개신교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아우구스부르그 신앙고백이 작성된 해이다. 칼 5세는 위에서 밀고 내려오는 터어키의 침공을 막기 위해 독일 내의 가톨릭과 개신교를 통일시킬 목적으로 아우구스부르그에서 국회를 소집했다. 루터는 파문을 당했기에 거기에 참여할 수 없었고 개신교 대표로 멜랑히톤이 참여해야만 했다. 루터 자신은 아우구스부르그 가까이로 가서 요새였던 코부르그에 거하면서 상황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개신교의 사활이 걸린 시간이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1530년 4월 16일 "십자가와 고난"에 관하여 설교했다. 여기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환난이 따르고 이 환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하여 신자에게 유익을 주심으로 기쁘게 환난을 받자는 자신의 십자가 신학을 역설하면서, 결전 앞에 놓여 있는 개신교 진영의 학자들과 영주들을 격려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이 곤경에 처할 때마다 설교라는 전투행위를 통하여 그 위기를 헤쳐 나갔다.

셋째, 자신의 신학을 선전하는 선전행위(Propagandehandlung)였다. 그의 새로운 개혁사상은 전달 매체가 필요했는데, 그는 설교를 통하여 평신도들에게까지 자신의 사상을 전달할 수 있었다. 브레히트(M. Brecht)는 여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잘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 외에 어떤 것도 설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율법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말한다.

지적한다. “루터에게 있어 설교직은 그의 신학을 적용하고 영향력 있게 만들어 주는 통로였다. 그는 이 설교를 통하여 그의 신학 사상을 적용하고 실제적으로 먹혀들게 하려고 애썼다. 이를 위해 신학 강단과 설교단은 하나를 이루었다. 실천에 이론이 부족하지 않았다.”³

루터 설교의 특징들

첫째, 성경해석과 신학 그리고 목양이 조화를 이루는 설교였다. 바이어(Oswald Bayer) 교수는 루터 설교의 이런 특징을 잘 요약한다. “루터에게는 강의와 설교 사이에 어떤 원칙적인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 학문적인 성경해석으로부터 설교적인 성경해석으로의 이행이 물 흐르듯이 흘러간다. 주석과 설교는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한 가지 목적에 이바지한다. 차이는 무엇보다 목양적 의도에 놓여 있다. 루터는 설교들을 통해 청중의 수용 능력에 자신을 적응시킨다. 반면에 강의는 설교에 대한 안내이고 거꾸로 설교는 강의를 통하여 얻어진 주경의 실행이고 완성이다.”⁴ 그의 설교는 치밀한 성경해석과 균형 잡아주는 신학 그리고 목양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어우러져 올라나오는 소리라 볼 수 있다.

둘째, 묵상과 시험과 기도를 통하여 정제된 설교

였다. 그는 자기 신학 사상을 확증시키기 위해 본문을 뽑아내지 않는다. 도리어 성경 본문으로부터 시작한다. 본문 말씀에 대한 묵상이야말로 진리의 광택을 찾는 것이었다. 그에게 있어 묵상한다는 것은 단지 마음 속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과 책속의 문자의 단어를 항상 움직이고, 문지르고, 읽고, 반복해서 읽고, 부지런히 표기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었고, 텍스트와의 교제였고 말씀 안에 들어가시는 것이었다.

이런 묵상(meditatio)을 그는 이제 시험(temptatio)을 통해 제련한다. 루터는 시험을 시금석으로 본다. “시험은 알려주고 이해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옳고, 얼마나 진실되며,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 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든 자해 위의 자해인지를 경험하게 한다.”⁵ WA 50, 660 그리고 기도(oratio)를 통해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간청한다.

셋째, 칭의 중심의 설교였다. 그에게 신학은 바로 죄인인 인간을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다. 신학은 칭의론과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었다. 루터를 가리켜 환원의 명수라고 하는데, 그는 당시 주류였던 스콜라 신학이 변증법을 통하여 쪼

개고 또 쪼개어 너저분하게 늘어놓았던 신학의 내용들을 다시 모아 칭의론이라는 크고 분명한 틀 속에 집어넣었다. 물론, 그가 말하는 칭의론이란 의에 관한 법조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이내믹한 창조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칭의 행위를 통하여 죄인의 구원을 창조하신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일을 칭의를 설교하게 하심을 통하여 이루신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칭의를 설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칭의를 설교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만이 아니다. 칭의를 설교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다. 칭의는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복음은 반드시 설교를 통해서만 전파되어야 한다. 복음은 단지 쓰여진 글이 아니라, 설교를 통하여 전파되어야 하는 구원의 기쁜 소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칭의를 설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설교한다는 것이다. 칭의론의 핵심은 그리스도이다. “이 그리스도 만에 해석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 흡사 종교개혁의 씨앗과 같다. 이 씨앗으로부터 오직 은혜 *sola gratia*, 오직 믿음 *sola fide* 이 성장했다. ...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전체주제이다.” G. Ebeling 그러나 루터는 그리스도를 설교하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 *sacramentum* 혹은 *donum* 와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시어 우리들이 본 받아야 할 분 *exemplum* 으로 구분해서 설교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당시 설교자들이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선물로만 설교하여 우리의 ‘지발적 순종을 약화시키는 경향에 대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 받아야 할 모범으로만 설교하여 ‘복음의 도덕화’를 야기시키는 오류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나 루터 자신은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그리스도를 설교한다는 것은 자난하고 매우 어려운 일이다. 내가 그것을 이전에 알았더라면 결코 설교하지 않았을 것이다. 도리어 모세와 함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했을 것이다.” 또한 칭의를 설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설교하는 것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 외에 어떤 것도 설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율법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의는 곧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다. 신앙은 아담에게서 연유된 우리의 불의를 그리스도에게로 전가하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전가하는 기쁨의 교환을 만들어낸다. 루터는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인의 의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넷째, 루터의 설교는 땅과 하늘을 소통하게 하는 설교였다. 그 소통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삶의 경험이었다. 루터는 경험 이전에 이론을 중요시했다. 그에게 진리는 수학공식과 같았다. 그러나 그는 경험이 이 진리를 입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은 가능한 전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경험은 스스로 쌓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경험이었다. “그에게 있어 경험은 행위가 아니라 수난이다. 내가 만드는 경험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경험이다.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나누어진 경험이다. 그리고 결국 이 경험은 성경 말씀에 대한 경험이다.” Bayer 그는 자신의 경험에 의해 확정되고 분명해진 말씀, 즉 경험된 말씀을 청중들에게 전달했다. 소통의 두 번



▲ 비텐베르크 교회 문앞에서 루터가 교회문에 자신의 논제 내걸자 교황 레오10세는 그것을 막으려했다.

째 방법은 시사적인 문제에 대한 공유였다. 1530년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이 작성되기 전 코부르그에서 행한 10편의 설교에서 이 사실이 잘 나타나 있다. 그는 그런 현실에 당면한 문제들을 복음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자들이 대처할 것을 말했던 것이다. 그는 소위 복음적 시사성을 늘 염두에 두며 설교를 했다. 또한 그는 청중을 가장 단순한 청중으로 보고 설교했다. 그는 본문을 풀어나가는 설교를 했지만 항상 단순한 신앙인들의 신앙을 독려하고 사랑을 격려하기 위해 설교를 했다. 그의 설교의 목표는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단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 수사학을 특히 유머와 해학도 사용했다. 이솝우화는 그가 자주 사용하는 예화였다. 그러나 그런 예화들을 단지 청중을 웃기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 도리어 이런 예화들을 통하여 기독교의 주요한 진리들을 청중에게 쉽게 이해시키려 하였다. 대표적으로 낚시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했다. 낚시밥은 예수님의 몸이다인성. 고

기는 마귀다. 마귀는 미끼인 예수님의 몸을 떨켜 삼킨다. 그러나 그는 이 미끼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낚시신성에 물리게 된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미끼를 통해 마귀를 잡고 그의 부활을 통하여 그의 신성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루터가 말하는 좋은 설교가의 조건

루터는 1532년 '마태복음 5~7장'을 설교했는데 그 서문에서 좋은 설교가가 가져야 할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첫째로 신선히 담대히 강단으로 올라가서, 둘째로 입을 열어 공개적으로 말해야 하고, 셋째로 자신의 설교를 끝낼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당시의 영파들이나 재세례파들이 공식적인 강단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집집을 방문하여 은밀하게 끝이 없이 속삭이며 증언거리는 행태에 대하여 꼬집으면서 한 말이다.

그는 또한 탁상담화에서도 좋은 설교가의 자격을 말하고 있다. 좋은 설교가는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 받은 자라는 것을 명심하는 사람이다. 그는 설교자들에게 이 소명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설교자들에게 그의 말씀의 직분을 맡기시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전혀 볼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직분이다. 그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설교하라, 내가 너의 설교사역이 성공하도록 하겠다. 나는 인간들의 마음을 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 한다. 세계가 우리의 설교직을 비웃도록 하라!" 하나님은 설교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둘째로 설교자는 자신이 말씀 전달의 중재자일 뿐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고 권면한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루터는 설교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

나님 자신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설교자는 전달의 도구일 뿐이다.

이 밖에도 그는 좋은 설교자가 가져야 할 조건들에 대해서도 말한다. “좋은 설교자는 이러한 재질과 덕성을 가져야 한다. 조직적으로 잘 가르칠 것, 적절한 기지를 가지는 것, 웅변적이어야 하는 것, 좋은 음성을 가지는 것, 좋은 기억력, 종결을 잘 자을 줄 아는 것, 교리를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 말씀에 몸과 피와 명예를 걸고 모험하는 것, 모든 사람의 조롱을 참아야 하는 것 등이다.”

그는 또한 좋은 설교가가 되려면, 오로지 그에 게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삶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좋은 설교자는 먹이고 방어할 줄 알아야 한다. “먹이고 방어하는 것은 한 목자에게 있어 함께 있어야 한다. 만일 방어가 없다면 늑대가 양들과 사료들을 함께 먹어치워 버릴 것이다”라고 경고한다. 또한 좋은 설교가는 청중의 차이를 고려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가르칠 내용을 정하고 청중이 누구든 고려하지 않고 전하는 사람은 좋은 설교자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설교가를 목수에다 비유한다. “설교가는 목수와 같다. 그의 연장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가 위해서 일해야 하는 청중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똑같은 톤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는 청중이 누군가에 따라 때로는 위로하고, 놀라게 하고, 나무라고, 화목해야 한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부지런히 주목하고 올바르게 구분해야 한다. 즉 두 종류의 인간들이 있다. 한 부류는 완악한 사람들인데 이들에게는 율법, 홍수, 엘리야의 불 그리고 예루살렘의 몰락 등과 같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예들을 갖다 대야 한다. 설교자는 이런 사람들을 즉각 공격하고 놀

라게 해야 한다. 하지만 양심 안에서 놀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약속들과 복음들을 관계시켜 주어야 한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의 예들을 눈앞에 갖다 대 주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는 또한 설교자는 설교를 명료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한다. 명료한 설교는 무엇보다 성경의 기록이 명료하기 때문이다. 외적 말씀이 명료함으로 전달하는 설교도 명료해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루터는 설교자가 피해야 할 금기 사항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설교자는 자기 지식을 뽐내지 말아야 한다. 그는 어머니가 가만히 누워 있는 어린 아이에게 말하듯이 쉽게 말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너무 길게 설교하지 말라고 한다. 설교가 한 시간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 또한 자기 앞에 있는 청중과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라고 말한다. “내가 설교단에 올라갈 때 어떤 인간도 보지 않는다. 단지 헛된 통나무들이 내 앞에서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로 말한다.” 명예와 돈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인다. 그는 더 나아가 설교가는 좌절을 이겨야 한다고 말한다. 위대한 설교가들에게도 좌절이 있었던 것처럼 루터 역시 좌절의 경험을 했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한때 청중의 태도로 인해 설교파업도 했었다. 그가 1537년에 ‘마태복음 5:20’ 이하의 본문을 가지고 했던 설교에서 우리는 이런 좌절을 볼 수 있다. “이 복음을 나는 대략 25년 동안 설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인색해지고, 오래되면 될수록 더 악해집니다.” 그는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설교에서도 좌절에 대해서 말했다. “이 복음을 우리는 매년 설교합니다. 우리가 매년 식어지기 때문입니

“복음만을 전하라!” 이것이 루터의 전체 설교를 주도하는 주도 동기였다. 루터의 인생을 말하자면 설교로 시작해 설교로 마치는 재미있는 인생이었다.

다. 그러나 이 설교를 통하여 자신을 개선시킨 사람들은 적은 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설교가는 이를 통하여 혼란스러워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어서 계속 말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는 또한 설교가들이 시험을 이겨야 한다고 말한다. “설교가는 낙담과 무가치하다는 느낌을 통해서도, 우리 설교가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어려운 일을, 가장 높은 예배를 그리고 신앙의 연습을 단념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당하는 자는 말해야 합니다. 나는 거룩한 설교의 직분이 맡겨질 정도로 하나님께 의해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시험조차도 강하게 만드는 논증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좌절을 극복하기 위해서 설교자는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기 전 그는 기도한다. “주 하나님, 당신은 나를 당신의 교회에서 감독으로, 목사로 세워 주셨습니다. 당신은 내가 그러한 크고 무거운 직분을 올바르게 수행하기에 얼마나 부적격하신지를 아십니다. 내가 그걸 당신의 충고 없이 행했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모든 것을 망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을 부릅니다” 그는 또한 올바른 설교자로 살려면 경제적 어려움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1530년에 했던 갈라디아서 강해에

서도 복음을 전하는 설교가가 율법을 전하는 설교가들에 비해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설교가 루터가 우리 시대의 설교가들에게 주는 도전

루터는 비텐베르크의 어거스틴 은자 수도원 예배당에서 설교하면서 그의 사역을 시작했고, 그의 고향 아이스레벤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인생을 마감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는 죽기 삼 일 전인 1546년 2월 15일에 했던 설교이다. 공교롭게도 그가 처음 설교를 아마 1512~13년의 어느 때 했을 때 택했던 본문인 ‘마태복음 11:28~30’을 본문으로 설교한다. 그는 이 설교에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그 시대의 지혜 있는 자들을 맹렬히 공격하고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재천명한다. 그와 더불어 그 시대의 교황이나 성직자들이 이 복음 외에 철학이나 다른 요소들을 덧붙이거나, 복음과 인간의 지혜들을 섞고 있다고 한탄한다. 이런 관점에서 복음 외에 여러 가지 계율을 만들어 자기 의를 쌓게 하는 수도원주의도 비판한다. 또한 복음의 말씀이 곳곳에서 올려져지는 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 면죄부를 사는 우준한 청중들도 비판한다. “면죄부를 사는 대신, 요셉의 바지를 사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호소한다. 더 나아가 복음의 영역과 율법의 영역을 혼잡하게 하는 영주나 교황도 비판한다. 그는 그의 두 정부문에 근거해 각각의 정부가 자신의 고유한 일을 해야 할 것에 대하여 강조한다.

그는 이 마지막 설교에서도 설교자와 청중들에게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설교임을 잊지 않도록 부탁한다. “바른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열심히 설교하고, 충실히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영광

만을 구하고 또 그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도 역시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목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주님을 나에게 말해 줍니다. 나의 목사는 나에게 주님을 보여 주십니다. 그가 나를 참된 교사이며, 주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인도하는 한 나는 그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며, 또 교회는 원만하게 잘 처리될 것이며 또 모든 주위에 조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설교에서 루터는 지금까지 그의 설교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그가 교황을 비롯한 여러 성직자들과 수도사들 그리고 학자들과 영주들을 공격하였는지 그 이유를 말해 주고 있다. "복음만을 전하라!" 이것이 루터의 전체 설교를 주도하는 주도 동기였다.

루터의 인생은 설교로 시작해 설교로 마치는 재미있는 인생이었다. 그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공헌은 '어떻게에서 보다 무엇에' 있었다. 그의 설교의 핵심은 이신칭의의 복음이었다. 칭의에 대한 설교가 당시의 교회에 개혁을 가져왔다. 이 설교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바로 이 칭의 설교가 것처럼 힘이 있었다. 이 점에서 그는 그 이후의 저명한 설교가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 존 번연을 비롯한 칭교도 설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존 번연의 애독서 중 하나가 루터의 갈라디아서 강의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존 웨슬리 역시 루터의 이신칭의로부터 새로운 체험을 하고 영국에서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다. 조지 헛필드를 비롯한 영국과 미국의 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 역시 이 칭의 설교를 핵심 진리로 다루는 설교였으며, 마이틴 로이드 존스를 비롯한 현대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가

들로 간주되고 있는 설교가들 역시 그들의 설교가 루터의 칭의론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 점에서 루터는 우리 한국 교회의 설교가들에게도 도전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오늘날의 신학은 개혁자들이 강조했던 칭의론 중심의 신학에서 많이 멀어져 있다. 이런 현상은 무엇보다 역사비평학에 근거한 성경 신학의 강세에 기인하는 것 같다. 19세기 이후에 교회 안으로 서서히 침투한 역사비평학은, 루터 당시 스콜라 신학과 같이, 진리들 사이의 경중(輕重)을 흐려놓았다. 그러나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다소 주변으로 밀려난 칭의론을 붙잡고 설교하는 설교가들 중 여러 사람들이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설교의 위기는 어떻게 전해야 할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무엇을 전해야 할지를 모르는 데서 생기는 위기이다. 무엇보다 칭의론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아는 설교가들이 너무 적다. 지금이라도 교회의 설교가 회복이 되려면 "교회를 세우고 넘어지게 하는 조항(*articulus stantis et cadentis ecclesiae*)"인 칭의의 복음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

김용주 전남대학교(BA), 숭산대학교(M.Div 졸업, Th.M 수료)를 나오고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학교에서 교회사(Di.theol.)를 공부했다. 지금은 안양대학교 겸임교수로 있다.

주(註)

1. H.S. Wilson, "Luther on Preaching as God Speaking", Timothy J. Wengert, eds. *The Pastoral Luther: Essays on Martin Luther's Practical Theology* (Grand Rapids Michigan/Cambridge, U.K.: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9) 100~114.
2. 설교자 루터, 루터 선집 10권, 자원웅 편집, 서울 1987.
3. Martin Brecht, *Luther*, Bd. I, Calwer Verlag Stuttgart 1990, 154.
4. Oswald Bayer, *Martin Luthers Theologie*, 2. Auflage(Tübingen : More Siebeck, 2004) 150하.